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1

겨우 34층밖에 되지 않는 나지막한 회색 빌딩. 중앙현관 위에는 ‘런던 중앙 인공부화·조건반사 양육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방패 모양의 현판에는 ‘공유·균등·안정’이라는 세계국가의 표어가 보인다.

1층의 거대한 방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방안은 열대지방같이 더웠으나 창밖은 여름이었는데도 황량하고 희미한 광선이 싸늘하게 창문을 통해 비집고 들어와 누군가 실험실용 가운을 입은 모습, 다시 말해서 어떤 창백하고 소름이 끼친 학자의 모습이 보이니 해서 허겁지겁 찾았지만 그 근처에서 보이는 것은 실험실용 플라스크와 니켈과 스산하게 빛나는 도자기류뿐이었다. 모든 것이 살벌함을 겨루고 있었다. 거기서 근무하는 자들은 흰 작업복을 입었고 손에는 시체같이 창백한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 조명은 차갑게 죽어 있었다. 유령 바로 그것이었다. 다만 현미경의 노란 원통에 반사된 빛은 무언가 풍요로운 생동감을 발하였고 작업대의 깊은 안쪽까지 버터와 같이 매끈한 원통을 따라 현란한 원을 그리고 있었다.

“여기가 수정실입니다” 하고 소장이 문을 열며 말했다.

3백 명의 수정계원(受精系員)은 인공부화·조건반사 양육소 소장이 방에 들어올 때 그들의 기구에 몸을 굽히고 숨을 죽인 것 같은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완전히 정신을 집중한 나머지 자아를 잊고 혼자서 콧노래라든지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새로 온 한 단체 견습생들은 매우 어린 홍안의 풋내기들이었는데, 불안한 표정으로, 아니 오히려 비굴해 보이는 자세로 소장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각자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고 소장이 말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갈겨쓰듯 받아 적고 있었다. 최고권위자에게서 직접 배운다는 것은 소중한 특권이였다. 런던 중앙 인공부화·조건반사 양육소 소장은 신입 견습생들이 오면 몸소 안내하며 각 부서를 보여주는 것이 상례였다.

“다만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소장은 견습생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곤 했다. 사실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현명하게 수행하려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지만—만일 사회의 선량하고 행복한 성원이 되려면 전반적 이해는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전문적 지식은 덕과 행복을 증진시키나 전반적인 지식은 지적 견지에서 볼 때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철학자들이 아니라 무늬를 도려내는 자들이나 우표수집가들이다.

“내일이 되면 여러분은 진지한 일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겐 일반이론을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하고 소장은 상냥한 표정에 위협을 가미하여 견습생들에게 말하곤 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러한 견습도 특전이였다. 최고권위자의 직강을 노트에 받아쓰는 것은 특전이였다. 젊은이들은 미친 듯이 쓰고 있었다.

키가 훗칠하고 좀 마른 편이지만 자세가 곧은 소장은 방 가운데로 걸어갔다. 그의 턱은 길었고 지껄이지 않는 동안은 두텁고 발그스름한 곡선을 이룬 입술이 그의 뾰족한 치열을 덮었다. 늙은 편일까? 젊은 편일까? 서른? 쉰? 쉰 다섯? 판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포드 기원 632년이라는 이 안정의 시대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것을 질문할 생각조차 떠오

르지 않았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소장이 말했다.

그러나 열의에 찬 학생들은 그들의 노트에 “처음부터 시작”하고 소장의 의도를 필기했다.

“이것들이 부화기라는 것입니다.”

소장을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러고는 차단문을 열고 번호가 붙은 시험관을 올려놓은 선반의 대열을 견습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이 이번 주에 할당된 난자들입니다. 이것은 혈액과 같은 온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는 설명을 계속했다. “하지만 남성 배우자들은.....” 여기에서 그는 다른 문을 열었다. “이것들은 삼십칠도가 아니라 삼십오 도로 보존됩니다.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면 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숫양들을 열발생 장치로 감싸면 새끼양을 낳지 못하는 이치이다.

소장이 부화기에 몸을 기댄 채 현대식 수정법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동안 견습생들의 연필은 읽을 수도 없는 필체로 노트 위에 휘갈기고 있었다. 물론 서두에 외과적 조치를 이야기했다.

“이 수술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해집니다. 육 개월 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보너스가 지급된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에 이어 절제된 난소를 산 채로 보관하고 성장시키는 기술을 어느 정도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최적의 온도와 염분과 점도(粘度)에 관하여 설명하고 다시 분리되어 성숙한 난자를 보관하는 액체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견습생들을 작업대 쪽으로 인솔하여 여러 가지를 견학시켰다. 이상에서 말한 액체를 시험관으로부터 끌어내는 방법, 그 액체를 현미경의 특별히 데운 슬라이드 위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방법, 그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담긴 난자의 이상 여부를 검출하여 그 수를 파악하고 다시 그것을 다공질 용기에 옮기는 방법, (여기서 소장은 그들을 이끌고 가서 그 조작 과정을 관찰하도록 했다) 다시 이 용기를 정충들이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는 수프 같은 액체에 담근다는 것—1세제곱센티미터당 최소한 10만 개의 정충이 집결해 있다고 소장은 역설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그 용기를 액체에서 건져 그 내용물을 다시 검사한다. 어떤 난자가 수정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그 액체에 담근다. 필요하면 몇 번이고 반복한다. 수정된 난자는 다시 부화기로 옮겨진다. 알파나 베타 계급은 완전히 봉해지기까지 그곳에 그대로 두지만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은 36시간만 지나면 그곳에서 꺼내어 보카노프스키 법(法)으로 처리된다.

“보카노프스키 법” 하고 소장은 반복했다. 그러자 견습생들은 그들의 작은 노트 속에 적힌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다.

한 개의 난자로부터 하나의 태아가 나오고 거기서 한 사람의 성인이 생긴다. 이것을 정상이라 한다. 그러나 보카노프스키 법으로 처리된 알은 싹이 나고 증식해서 분열한다. 8에서 96개의 싹을 틔우며 그 한 개 한 개가 성장하여 완전한 형태를 지닌 태아가 되고 각각의 태아는 완전한 크기의 성인이 된다. 전에는 한 인간이 자라던 곳에서 96명이 자라도록 한다. 이거야말로 진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보카노프스키 법이란 일련의 성장억제조치로 구성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장을 억제할 때 알들은 그것에 대응하여 발아현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하고 소장은 결론을 내렸다.

(이것에 대응하여 발아현상을 일으킨다)—견습생들의 연필은 바빠 달렸다.

소장은 지적했다. 매우 서서히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 놓인 시험관이 가득한 선반이 큼직

한 금속 상자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의 시험관이 담긴 선반은 거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기계는 부드러운 소리로 울고 있었다. 시험관들이 그곳을 통과하는 데는 8분이 걸린다고 그가 설명했다. 강력한 X레이를 8분간 견딘다는 것은 난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극한지라는 것이다. 그 중에는 사멸하는 난자도 있다.

생존한 것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약한 난자는 2개로 분열하지만 대개는 4개의 짝을 내민다. 어떤 것은 8개의 짝을 내민다. 다시 모든 것은 부화기로 환원된다. 거기서 짝은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틀 후에는 급격히 냉각시킨다. 냉각시켜 발육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그 각각의 짝은 2, 4, 8개로 발아된다. 발아가 끝나면 사멸할 정도까지 알코올에 담근다. 거기서 다시 짝을 내미는데, 그 발아 과정이 끝나면 이 세 번째 짝은 더 이상 발육을 억제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냥 평화롭게 발육하도록 방치된다. 이 시점에 이르면 최초의 난자는 8개에서 96개의 태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에 가해진 놀라운 개선이라는 점에서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난자가 때로 우연한 분열을 일으키던 모태시대에서 보았던 보잘 것 없는 쌍둥이나 세 쌍둥이가 아니라 훌륭하고 똑같은 쌍둥이가 나오는 것이다. 그것도 한번에 몇 다투씩, 아니 몇 십 쌍씩 나오는 것이다.

“몇 십 쌍!”

소장은 그 어휘를 반복하고 마치 기분 좋게 선심을 쓰듯 그의 팔을 앞으로 뻗었다.

“몇 십 쌍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견습생이 “그렇게 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고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건 놀랄 일이로군!”

소장은 그 학생 쪽으로 몸을 급히 돌렸다.

“자넨 그것을 모르겠나? 그걸 정말 모르겠나?”

그는 한 손을 올렸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보카노프스키 법은 사회안정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야!”

사회안정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

표준형 남녀, 균등한 집단.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거친 한 개의 난자로부터 태어난 인간으로 충원된 작은 공장.

“아흔여섯 명의 일란성 쌍생아들이 아흔여섯 개의 동일한 기계를 조작하는 거다!”

그 목소리는 열의에 차서 거의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고 소장은 세계국가의 표어를 인용했다.

“공유, 균등, 안정이 실현된 것입니다.”

거창한 말이다.

“우리가 무한히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표준형의 감마 계급, 한결같은 델타 계급, 균등한 엡실론 계급의 경우는 이미 해결되었다. 수백만의 일란성 쌍생아를 생산할 수 있다. 대량생산의 원칙이 마침내 생물학에 응용된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무한히 이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은 머리를 흔들었다.

96이 한계이며 72가 후하게 잡은 평균인 것 같았다. 동일한 난소에 동일한 남성 배우자를 결합시켜 될수록 많은 일란성 쌍생아의 무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것이 그들로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긴 했으나 슬프게도 차선의 성과였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곤란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자연 속에서는 이백 개의 알이 성숙되는 데 삼십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현재의 인구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반 세기에 걸쳐 쌍생아들을 절끔절끔 만들어내고 있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포즈네프 씨의 기술이 이 난자의 성숙과정을 놀랍도록 촉진시켰던 것이다. 그들은 2년 이내에 적어도 1백 50개의 난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을 수정시켜 보카노프스키 법으로 처리하면, 다시 말해서 72배로 증식시키면 평균 1만 1천 명 가량의 형제자매가 1백 50쌍의 일란성 쌍생아 집단으로부터 태어난다. 그것도 같은 시대에 속한 2년이란 기간 이내에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한 개의 난소가 일만 오천 이상의 성인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소장은 그때 금발의 혈색이 좋은 청년이 곁을 지나가자 그를 불렀다.

“포스터 군, 한 개의 난소가 세운 최고 기록을 말해줄 수 있겠나?”

소장은 그 청년이 가까이 오자 물었다.

“이곳에서는 일만 육천십이입니다” 하고 포스터 군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는 말이 빠르고 생기있는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숫자를 인용하는 것이 자못 즐거운 모양이었다.

“일만 육천십이입니다. 그것이 일백팔십구 조의 쌍생아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 곳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계속 지껄었다. “열대지방의 인공부화소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일만 육천오백 이상을 생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몸바사[아프리카 동해안]에서는 실로 일만 칠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공평할 정도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까닭입니다. 사실 흑인의 난소는 뇌하수체의 분비에 대해 맹렬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유럽인들을 다루던 우리가 볼 때 흑인의 난소는 경탄할 만한 성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고 그는 웃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의욕의 빛이 감돌았고 그가 턱을 드는 모습은 자못 도전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될수록 그들을 능가할 계획입니다. 제가 현재 놀라운 델타 마이너스 난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겨우 십팔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시다. 그런데 벌써 일만 이천칠백 이상의 아기가 생산되었거나 태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소는 아직 약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곧 그들을 능가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정신을 좋아하네!”

소장은 외치며 포스터 군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 나를 따라와서 이 학생들에게 자네의 전문지식을 베풀어주게.”

포스터 군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영광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모두 그를 따라갔다.

저장실은 온통 소란하면서도 조화와 질서가 느껴지는 활력이 넘쳤다. 싱싱한 돼지의 복막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지하 2층 장기 저장소로부터 작은 엘리베이터에 실어 쏜살같이 올라오고 있었다. 히유! 하고 다시 딸깍 하는 소리가 나더니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병에 담은 담당계원은 단지 한 손을 뻗어 그 조각을 집어 병에 넣고 부드럽게 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채워진 병이 끝없이 이어지는 컨베이어 위에 실려 손이 닿지 않는 위치로 이동하기도 전에 히유! 딸깍! 하고 다음 차례의 복막 조각이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와 다른 병으로 들어가서, 컨베이어 위에 실려 천천히 이동해 가는 병의 대열 후미에 자리잡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었다.

그 담당계원들 다음에는 난자삽입 담당이 서 있었다. 병의 대열이 전진했다. 난자는 하나하

나뭇 시험관으로부터 나와 보다 큰 용기로 옮겨졌다. 병 속에 담긴 복막 조각은 재빨리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에다 상실기태아가 삽입되고 염기성용액이 주입되었다.....그런가 했더니 병은 벌써 그곳을 통과하고 이번에는 꼬리표를 붙이는 담당자의 손에 넘어갔다. 유전, 수정일시, 보카노프스키 집단의 일련번호-상세한 기록이 시험관으로부터 병으로 옮겨갔다. 이제 무명이 아니라 명명되고 신원이 밝혀진 가운데 병의 행렬은 전진했다. 벽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서서히 '계급예정실'로 들어갔다.

“팔십팔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색인 카드입니다” 하고 그들이 방에 들어갔을 때 포스터 군이 말했다.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고 소장이 부연했다.

“매일 아침 최신자료를 첨가합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는 정비할 것을 정비합니다.”

“그것을 기초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러저러한 성질의 인간이 몇 명이라는 계산입니다.”

“이러저러한 양으로 분포되고.....”

“일정한 시간에 가장 알맞은 출산율은.....”

“예측하지 못한 소모는 즉시 보완됩니다.”

“즉시 보완됩니다.” 포스터 군이 반복했다.

“최근에 일어난 일본의 지진 이후 내가 얼마나 초과근무를 해야 했는지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포스터 군은 명랑하게 웃으며 머리를 내저었다.

“계급예정계가 그 숫자를 수정계에 전달합니다.”

“수정계는 계급예정계가 요구하는 태아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사회계급을 상세히 분류 혹은 배치하기 위해 병이 이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태아실로 보내집니다.”

“자, 그러면 태아저장실로 가봅시다.”

그리하여 포스터 군은 문을 하나 열고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로 안내했다.

온도는 아직 열대와 같았다. 그들은 짙어가는 황혼빛 속으로 내려갔다. 두 개의 문에다 구불구불한 복도 때문에 그곳은 햇빛이 침입할 염려는 없었다.

“태아는 마치 사진 필름과 같은 것입니다.” 포스터 군은 두 번째의 문을 열며 으스스대듯 말했다. “그들은 빨간색 조명만을 견뎌낼 수 있으니까요.”

실로 견습생들이 그를 따라 들어간 곳의 후덥지근한 어둠은 여름날 오후에 눈을 감았을 때처럼 사물이 보이는 심홍색의 어둠이었다. 수없이 층층으로 겹쳐 쌓이고 열을 지어 늘어선 배가 불룩한 병들은 무수한 루비를 흩어 놓은 것처럼 빛났고 그 루비들 가운데에 충혈된 눈으로, 온갖 결핵성 부스럼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남녀가 불그레한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기계에서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와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포스터 군, 이들에게 숫자를 좀 알려주게.”

이제 이야기에 지친 소장이 말했다.

포스터 군은 그들에게 숫자를 알려줄 수 있어서 마냥 즐거웠다. 길이가 2백 20미터에 너비가 2백 미터, 높이가 10미터라 했다. 그는 천장을 가리켰다. 물을 마시는 병아리들처럼 견습생들은 까마득한 천장을 향해 눈을 들었다.

시령은 3단이었는데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었다.

거미줄 같은 철근이 층층으로 연결되며 사방으로 퍼져가서 결국은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

고 있었다. 그들 근처에서 붉은 유령 같은 세 명의 인간들이 에스컬레이터로부터 채롱에 든 병들을 부산하게 내리고 있었다.

계급예정실로부터 이곳으로 운행되는 에스컬레이터.

각각의 병은 15개의 선반 중 하나 위에 놓여질 수 있었다. 그런데 각 선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시간에 33센티미터 3분의 1의 속도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시스템이었다. 하루 8미터의 속도로 2백 67일 동안 그러니까 모두 2천 1백 36미터가 된다. 1층의 방을 일주하고 2층을 일주하고 3층은 반바퀴만 돌아서 2백 67일째 아침, 출산실에서 햇빛을 본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다—이를테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동안에” 하고 포스터 군은 설명을 마쳤다. “우리는 태아에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합니다.”

그의 웃음은 무엇에 통달하고 있다는 웃음이며 의기양양한 웃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정신이야” 하고 소장이 다시 말했다. “자, 걸어서 돌아봅시다. 포스터 군 자네가 견습생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게.” 포스터 군은 그들에게 적절히 설명했다.

복막이라는 침대 위에서 성장하는 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태아에게 공급되는 양분이 풍부한 혈액대용액을 맛보라고 했다. 왜 태아를 태반분비물과 갑상선 호르몬으로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를 설명했다.

또한 난소황체의 추출물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그 추출물이 자동적으로 주사되는 분출구를 보여주었다. 원점으로부터 2천 40미터에 이르는 동안 12미터마다 설치된 분출구였다. 마지막 96미터에 걸친 과정에서 주어지는 점차 증가되는 뇌하수체 분비물에 대해 설명했다. 1백 12미터에 걸친 과정에서 각 병에 장치되는 인공적인 모체혈액의 순환에 대해 설명했다. 혈액대용액의 저장장치라든가 그 액체를 태반 위로 넘치게 해서 인공폐를 통과하고 노폐물 여과장치를 통과하도록 하는 원심력 펌프를 보여주었다. 또한 태아는 골치아프게도 빈혈에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예방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과 그러한 경우에 있어 태아에게 돼지의 위에서 뽑아낸 엄청난 양의 추출물과 말의 태아의 간장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또한 8미터에서 마지막 2미터 사이에 설치한 간단한 기계장치로 태아가 운동에 숙련되도록 태아를 흔들어주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른바 ‘병 속의 충격’이라고 부르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병에 든 태아를 적당히 단련시켜 그 위험한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2백미터 근처에서 행해지는 성별검사에 대해 설명했다. 표지의 종류—남성에게는 T, 여성에게는 O, 그리고 불임녀로 결정된 것에는 백지에 검은 ‘?’를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하고 포스터 군이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임신능력이라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일천이백 개 중에서 한 개의 난소가 임신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선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할 필요도 없는 일로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 태아의 삼십퍼센트는 정상으로 발육시킵니다. 나머지에게는 남은 코스의 이십사 미터마다 남성 호르몬을 투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임녀로 양육됩니다. 체격은 전혀 이상이 없으며 다만.....” 하고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콧수염이 약간 나는 경향이 있을 뿐이며 그냥 임신만 하지 않는 여성입니다. 불임성을 보증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고 포스터 군은 말을 이었다.

“자연을 노예적으로 모방하던 영역에서 인간적 발명성이라는 보다 흥미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포스터 군은 만족스런 표정으로 양손을 비볐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태아를 부화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야 암소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계급을 미리 정하고 조건반사적 습성을 훈련시킵니다. 우리는 사회화된 아기를 내놓습니다. 알파 계급 또는 엡실론 계급을 내놓아 장치 하수구 청소부로서 아니면 미래의” 그는 미래의 “세계총통”이라고 말할 예정이었지만 정정해서 미래의 “인공부화소장”이라고 말을 맺었다.

소장은 그 찬사를 미소로서 받아들였다.

그들은 11호 선반의 3백 20미터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다. 젊은 베타 마이너스의 기계공이나사를 조이는 드라이버와 스패너를 가지고 그곳을 통과하는 병에 연결된 대용혈액 펌프를 분주하게 틀고 있었다. 전기 모터에서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는 그가 나사를 돌리자 한층 고조되었다. 계속 돌리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돌리고 나서 그는 회전계를 힐끗 바라보더니 그제서야 손을 멈추었다. 그는 두 발자국 물러서서 이번에는 다음 병에 대하여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일본 동안 도는 회전수를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포스터 군이 설명했다.

“대용혈액의 순환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폐를 통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아에게 주는 산소의 양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태아를 표준 이하로 만들자면 산소 결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다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비볐다.

“하지만 왜 태아를 표준 이하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하고 어떤 순박한 견습생이 물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소장이 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엡실론 계급의 태아는 엡실론적 유전뿐 아니라 엡실론적 환경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쯤 자네는 생각하지 못하나?” 그것은 확실히 그의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다. 학생은 혼란에 빠졌다.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산소를 조금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고 포스터 군이 말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침범당하는 기관은 두뇌였다. 다음에는 골격이다. 통상 산소공급량의 70퍼센트만 공급하면 난쟁이가 된다. 70퍼센트 이하로 하면 눈이 없는 괴물이 된다.

“그런 괴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포스터 군이 말을 맺었다.

그러나 (여기서 포스터 군의 음성은 자신과 열의를 띠었다) 혹시 성숙기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이 발전되면 이건 얼마나 빛나는 성공이며, 사회에 대한 얼마나 큰 공헌일까!

“말의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 말에 대해 생각했다. 6세에 성숙한다. 코끼리는 10세에, 그러나 인간은 13세가 되어도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을뿐더러 20세가 되어서야 완전해진다. 물론 이러한 완만한 발육을 하는 까닭에 인간의 지성은 훌륭하게 발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엡실론 계급에게는 인간적인 지성이 필요치 않습니다.” 포스터 군이 매우 정의롭게 말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획득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엡실론 계급의 지능은 10세에 성숙되지만 그 육체는 18세까지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 그동안의 기간은 쓸데없는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육체적 성장이, 이를테면 암소의 성장처럼 속성화될 수 있다면 사회에 얼마나 막대한 절약이 될 것인가!

“막대하고말고!”

견습생들이 중얼거렸다. 포스터 군의 열의가 전염된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다소 전문적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인간의 발육을 지연시키는 여러 가지 내분비선의 비정상적인 협력관계를 설명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태아기에 있어서의 어떤 변이현상을 가정했다. 그 태아기의 변이현상이 가져오는 영향을 말소시킬 수 있는 것일까? 엽실론 계급의 태아는 어떤 적절한 기교를 이용하면 개나 암소와 같은 정상상태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문제다. 그러나 그 문제도 거의 해결된 상태라는 것이었다.

몸바사에서는 필킹튼이 4세에 성적으로 성숙하고 6세 반 만에 완전히 성숙되는 인간을 만들었다. 그야말로 과학적 승리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무익하다. 6세의 성인 남녀는 엽실론적 노동을 하기에도 너무나 저능했다. 또한 이 제작과정은 전부가 아니면 무(無)라는 속성을 지닌 것이었다. 전혀 변화시킬 수 없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든가 하는 극단이었다. 그리하여 20세의 성인과 6세의 성인 사이에 이상적인 타협점을 찾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라는 것이었다.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포스터 군은 신음하듯 호흡을 토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심홍색 땅거미 속을 방황하여 이윽고 시령 제9호의 1백 70미터 근방에 이르렀다. 거기서부터 시령 제9호는 온통 밀폐된 상태였다. 그래서 병들은 남은 여정 동안 이를테면 터널 같은 곳을 통과하게 된다. 그런데 그 터널에는 2, 3미터의 폭을 가진 창이 여기 저기 뚫려 있었다.

“열조건반사 습성단련이라는 겁니다.” 포스터 군이 말했다.

더운 터널과 추운 터널이 교대로 설치되어 있었다. 강한 X레이의 형태로 차가운 온도가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래서 병으로부터 출산할 무렵에 가서는 태아가 추위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된다. 이 태아들은 열대지방에 이주하여 광부나 인조건 직조공이나 철강공이 될 예정이었다. 태아는 육체의 판단을 저절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신적 훈련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더위 속에서 원기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고 포스터 군은 말을 맺었다. “위층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더위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고 소장이 격언을 말하듯 입을 열었다. “바로 그것이 행복과 미덕의 비결이야—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 모든 조건반사적 단련이 목표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 자신들의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숙명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두 개의 터널 사이에 있는 간격 속에서 한 간호사가 길쭉한 주사기로 지나가는 병 속의 젤라틴 상의 내용물에 주사를 놓고 있었다. 견습생들과 인솔자는 아무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면서 있었다.

“레니나.”

포스터 군은 그녀가 주사기를 치켜들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았다. 마치 낭창에 걸린 것처럼 눈은 자주색이었지만 그녀는 드물게 보는 미인임을 잘 알 수 있었다.

“어머, 헨리!”

그녀의 미소가 그를 향해 빨간 섬광을 던졌다. 산호 같은 치열이 드러났다.

“정말 매력적이야!” 하고 소장이 중얼거리며 그녀의 어깨를 두세 번 가볍게 두드렸다. 그러자 그 대가로 그녀는 소장에게 경애하는 미소를 던졌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포스터 군은 직업적인 어조로 돌아가서 물었다.

“항상 하는 티푸스와 수면병이에요.”

“열대지방의 노무자에게는 일백오십 미터부터 예방병균을 접종하기 시작합니다.” 포스터 군은 견습생들에게 설명했다.

“태아들은 아직 아가미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물고기에게 장차 인간이 되어 걸리게 될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레니나에게 몸을 돌렸다.

“오늘 오후, 전처럼 다섯시 십분 전에 옥상에서야” 하고 말했다.

“매력적이야.” 소장은 다시 한 번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깨를 두드려주고 다른 일행의 뒤를 따랐다.

시령 제10호에서는 다음 세대의 화학공장에서 일할 노무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낚, 가성소다, 타르, 염소 등을 이겨낼 수 있게끔 단련되고 있었다. 로켓 조종사가 될 2백 50개의 태아 중 선두주자가 지금 막 시령 제3호의 1천 1백 미터 지점을 통과하는 중이었다. 특별장치에 의해 이들 태아를 넣은 용기는 끊임없는 회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의 평형감각을 발달시키려는 것입니다.” 포스터 군이 설명했다. “공중에서 로켓 밖으로 나와 수선작업을 벌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똑바로 서 있을 때에는 혈액의 순환을 늦춰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半) 아사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을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만들어 혈액공급을 배로 늘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태아는 거꾸로 선 자세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들은 머리를 땅에 대고 물구나무를 섰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포스터 군은 말을 계속했다.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계급의 지식인들에 대한 특별히 재미있는 조건반사 단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령 제5호에는 그러한 태아의 큰 집단이 있습니다. 자, 2층이 되겠습니다.”

포스터는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두 학생을 다시 불렀다.

“구백 미터 부근입니다.” 그는 설명했다. “태아의 꼬리가 빠지기 전까지는 능률적인 지적단련은 불가능합니다. 자, 나를 따라 오십시오.” 그러나 소장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세시 십분 전이야.” 그가 말을 시작했다. “지식계급의 태아를 볼 시간이 없겠는데..... 우리 아기들이 오후 낮잠을 끝마치기 전에 육아실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포스터 군은 실망했다.

“그러면 ‘출산실’이나 잠깐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고 그가 간청했다.

“그렇게 하게.” 소장은 관대하게 미소지었다. “그냥 잠깐만 보는 거야.”